

한국 간호사들 세계 간호 호흡하며 교류

“국제무대 중심에 선 대한간호협회 자랑스러워”

2019 국제간호협회(ICN) 학술대회에 한국 간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는 6월 27일~7월 1일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7월 2일에는 보건 의료기관 견학이 진행됐다.

한국 간호사들은 세계 각국에서 모인 간호사들과 만나 교류하며 우정을 나누고, 최신 간호 흐름과 정보를 함께 호흡했다. 다양한 논문발표를 통해 우수한 한국 간호를 널리 알렸다.

대한간호협회는 논문 발표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두 발표자에게 각 30만원, 포스터 발표자에게 각 20만원을 지원했다.

한국 간호사들은 개회식에 한복을 차려입고 참석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구촌 간호사들은 한국 간호사들과 기념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다.

특히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 평화상 후보추천 서명을 받는 대한간호협회 부스에서 한복을 입고 활약했다.

안혜민 영남대병원 간호행정팀장은 “ICN 학술대회에 처음 참가했는데 전 세계 간호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격스러웠다”면서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 노벨평화상 후보추천 활동을 펼친 대한간호협회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김영고 대구 세강병원 간호부장은 “한국 간호의 세계적인 위상을 실감했으며, 한복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아 보람됐다”면서 “세계 무대에서 한국이 열정적으로 활약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전인환 칠곡경북대병원 간호사는 “간호라는 공통점으로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놀라웠고 감동이었다”며 “언어는 서로 달라도 간호의 본질은 같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영미 남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ICN 학술대회에 여러번 참석했는데 올해는 각별한 감동과 자부심을 만끽한 대회였다”면서 “대한간호협회의 열정과 노력이 국제무대에서 빛을 발하면서 한국 간호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것 같아 뿌듯하다”고 밝혔다.

컨퍼런스 세션 발표자로 참여한 이지아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교수는 “각 나라의 간호상황과 새로운 트렌드를 배울



국제간호협회(ICN) 학술대회 개회식에 한국 간호사들이 한복차림으로 참석해 우리의 멋을 세계에 알렸다.



수 있었으며, 간호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앞으로 IT를 활용한 질 높은 간호를 위해 더욱 열심히 연구활동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류기욱 연세대 간호대학 박사과정생

은 “국제학술대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어 값진 경험이 됐다”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간호사들의 잠재적인 힘이 적극 발휘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고 싶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김모임 간호혁신 및 정책영향력상’

제2회 수상자 알 아라지 대표
중동지역 에이즈 퇴치 기여



왼쪽부터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수상자 알 아라지 대표, 이태화 연세대 간호대학장.

‘제2회 김모임 간호혁신 및 정책영향력상’ 수상자로 엘리아스 알 아라지(Elias Al Aaraj) 에이즈퇴치아랍지역네트워크(Regional Arab Network Against AIDS) 대표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6월 2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ICN 학술대회 개회식에서 진행됐다.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과 이태화 연세대 간호대학장이 시상했다. 상금 1만달러가 수여됐다.

알 아라지 대표는 레바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에이즈 피해감소 조치 도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30년간 레바논은 물론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에이즈 예방에 힘써왔다. 에이즈 감염 위험성에 노출된 사람들의 피해 감소를 위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피해감소협회를 설립했다.

알 아라지 대표는 7월 1일 기조강연을 통해 “이 상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영광이며, 함께 일한 동료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면서 “우리는 인류를 위해 일해야 하며, 특히 폭풍에 맞서 길을 때 필요한 가장 첫 번째 도구는 바로 단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위대한 업적을 얼마나 성취했느냐보다 세상에 얼마나 사랑을 주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모임상 2등상(runners-up)은 엘살바도르에서 간호 전문직 거버넌스 및 간호의 질 관리 향상에 공헌한 노라 엘로이사 바라호나 페냐테(Nora Eloísa Barahona Peñate)와 그녀의 동료 레이나 에르난데스(Reina Hernández)와 마리아 테레사 데오다네스(María Teresa Deodanes)에게 주어졌다. 상금 5천달러가 수여됐다.

한편 ICN은 김모임 전 ICN 회장의 기부금으로 ‘김모임 간호혁신 및 정책영향력상’을 제정했다. 2017년 첫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2년마다 수상자를 선정한다. 김모임상 운영에 필요한 기부금은 연세대 간호대학 김모임간호발전기금에서 매년 ICN으로 보낸다. 김모임 전 ICN 회장은 대한간호협회 회장,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세계보건기구(WHO) 간호정책 고문 등을 지냈다.

‘국제간호대상’ 수상 피츠패트릭 교수

세계 간호교육 발전 기여
혁신적 개념 모델과 이론 개발



왼쪽부터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수상자 조이스 피츠패트릭 교수, 신성례 ICN 제3부회장.

2019 국제간호대상(International Achievement Award) 수상자로 조이스 피츠패트릭(Joyce J. Fitzpatrick)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 간호대학 교수가 선정됐다. 연구와 혁신적 개념 모델 및 이론 개발을 통해 간호교육 발전에 국제적으로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다.

시상식은 국제간호협회(ICN) 플로렌스나이트게일국제재단(FNIF) 주최로 6월 30일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국제간호대상은 간호 실무·교육·연구·행정 분야에서 헌신하며 탁월한 업적을 남긴 간호사에게 주는 상이다. 2년마다 시상한다.

피츠패트릭 교수는 조지타운대에서 간호학 학사학위,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정신간호 석사학위,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에서 경영학 석사(MBA), 뉴욕대에서 간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간호협회 미국간호사재단(American Nurses Foundation) 의장을 지냈으며, 현재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간호대학과 웰스케이 관련 기구를 위해 협력하고 지원하는 데 헌신해왔다. 한국 간호계와도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으며, 간호발전을 위한 조건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피츠패트릭 교수는 “국제간호대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보다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면서 인간의 경험에 대한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는 동료 간호사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과 함께 나이트게일국제재단에서는 ‘소녀들을 위한 교육 펀드’(GCEF: Girl Child Education Fund) 기금모금을 진행했다. 재단에서는 아프리카 소녀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간호사인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프리카의 18세 미만 소녀들이 초중등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학비, 교복, 책,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 펀드다.

한편 2001년 국제간호대상은 당시 김수지 이회여대 간호대학 교수가 지역사회중심 정신보건사업 모델을 개발 보급한 공로로 수상한 바 있다.



‘세계간호학생대회’

차세대 간호리더 한자리에 간협, 한국 대표 선정해 참가비 지원



세계간호학생대회에 참석한 한국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차세대 리더인 간호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인 ‘2019 세계간호학생대회(Nursing Student Assembly)’가 6월 26일 오전 9시 싱가포르종합병원 아카데미(SGH Academia)에서 열렸다. 각국에서 340여명의 간호학생들이 참가했다.

한국에서는 간호대학생 4명이 참석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의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 이예지(중앙대), 정석강(강원대), 채희원(부산대) 학생을 선발해 참가비를 지원했다. 개인 참가자로 이우진(동남보건대) 학생이 참석했다.

개회식에서는 용 킵 광(Yong Keng Kwang) 싱가포르간호협회 부회장과 ICN 에리카 버튼(Erica Burton) 간호·보건정책 선임연구원 이 환영사를 했다.

이번 학생대회에서는 간호의 미래와 간호학생의 영향력에 대한 열린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소셜미디어와 정신건강,

실습교육, 리더십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간호의 세계적 목소리’ ‘널싱 나우’ ‘세계 간호사 현황’ 등에 대한 주제강연이 진행됐다. 줄리안 바델 마르티네스(Julian Vadel Martinez) ICN 학생인턴이 ICN의 학생 참여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예지 학생들은 소그룹으로 나누어 간호가 직면한 문제에 간호학생들이 기여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예지 학생은 “전 세계 간호학생들이 모인 큰 행사에 참여한 것이 영광스럽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간호협회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더욱 열심히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석강 학생은 “ICN에서 간호학생과 젊은 간호사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책임감을 갖고 한국 간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이우진 학생은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과 교류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면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강의와 정보 공유를 통해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에리카 버튼 ICN 선임연구원은 “간호 학생과 젊은 간호사는 세계의 건강과 복

지 증진,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간호전문직의 영향력 확대 등 폭넓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전문가”라면서 “ICN은 정책과 실무 영역에서 미래 리더를 육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ICN 사무총장은 “학생들은 간호의 미래이며 매



우 중요한 존재”라며 “우리는 미래 세대를 지지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간호학생대회는 ICN 대표자회의 및 학술대회와 함께 열린다. 올해 학생들이 논의한 내용은 6월 27일 ICN 대표자회의에서 정식으로 보고됐다.